

미술사학 토대 부실하지만 근대미술사 연구성과 값져

2001년 미술학계의 성과와 과제

최 열 | 미술평론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대결 구도를 상실할 즈음 새로운 중심은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 1990년대를 가로지르며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구조주의 따위 철학과 미학을 전용하는 가운데 다원주의, 탈이론, 탈미학의 광범위한 번식력을 과시했다. 오늘날 페미니즘, 생태주의 그리고 비디오, 테크놀러지, 사이버 따위 새로운 매체를 둘러싼 미술이론은 새로운 것도 독특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반화된 담론들이다. 20세기 후반 내내 그러했듯 그 이론, 그 담론은 서구의 번역이다.

그 많은 학회 발표회와 비평가들의 목소리에도 현대미술사학회가 엮은 《미술 속의 페미니즘》(눈빛) 같은 연구성과가 드문 반면에 린다 노클린의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정연심, 조형교육) 등 번역서가 줄을 잇는 현상에서 그런 번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미술사 이론 번안 여전히

반세기 이상 미술가들이 서구를 번안해왔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므로 그 번안 미술을 뒤따르려면 이론가들 또한 서구 번역에 충실해야 했던 것인데, 2001년의 미술이론가들도 그 '유장한' 전통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처럼 유목(遊牧)과 잡종이 다양함 또는 복수주의와 엇비슷한 무게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에는 서구 모방, 추종, 이식 따위가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모방, 추종, 이식은 더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유목민의 잡종들처럼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 일 뿐이며 예술이란 공동체가 인정하는 모든 것이라는 합의 아래 당당하고 의연한 일이다. 청산해야 할 것은 지역성이며 민족성이다. 획득해야 할 것은 세계성이고 소통과 통합의 연대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2001년의 미술비평가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많은 담론들은 결국 연대의 틀을 구성하는 하위 종속 요소들일 뿐이다.

또한 미술사학계를 휩쓸었던 탈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신미술사학, 아니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술사학회의 학술대회 표제로 나서는 새로운 서구의 미술사 이론은 그러나 실제로는 2001년 미술사학자들의 관념에서만 떠돌고 있었던 듯하다.

사학의 빛나는 열매는 여전히 실증주의 작업으로부터 비롯하고

있거니와, 이는 미술사학의 기초인 자료 수집과 정리가 지나치게 부실한 사학계의 현실 때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성미 교수 책임으로 진행된 《조선왕조실록 미술기사 자료집》(한국정신문화원)이나 강관식 교수가 규장각 자비대령화원 녹취재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한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전2권)》(돌베개)가 이제야 세상에 나오고 있으니 우리 미술사학의 기초인 연대기조차 없었음을 탄식해야 할 판이다. 그런 판에 저 현란한 서구 미술사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새로운 성과를 낸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독자적인 방법론, 독자적인 사학체계의 수립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 아니겠는가.

20세기 전반기 미술이론 복원은 값진 성과

하기야 일제 식민 어용사학자들이 만 들어놓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 따위와 어슬픈 해석을 둘러싸고 시비곡직을 가리는 일조차 게을리해왔으니 더 물어 무엇할까마는 문득 일본인의 그 애조의 미학을 한국미학의 심오한 풀이로 존중하고 있음을 볼 때 21세기 한국미술사학의 과제는 그만큼 엄중하다 하겠다. 그런 반성은 최근 10여년간 활성화된 근대미술사학 쪽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조차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2001년에 이르러 그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른바 업적들이 몇가지 선보였는데 앞서 거론한 몇 권의 출판물은 물론 유흥준의 《화인열전(전2권)》(역사비평사)이나 조은정 외의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대원사) 같은 연구서의 간행은 더할 나위 없는 성취다. 여기에 덧붙여 《근원 김용준 전집(1~3)》(열화당)이나 윤희순의 《조선미술사연구》(열화당) 복간은 20세기 전반기 미술이론을 복원하는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2001년 한 해 동안의 성취가 이만하고 또 그 많은 비평가와 그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있으니 희망은 여전하다. 다만 한가지, 그 많은 이론가들이 서구 따라잡기에 매몰되지만 앓는다면 말이다. ■

최 열씨는 조선대 미술학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고, 한국근대미술학회 회원 및 가나아트센터 기획실장으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한국현대미술운동사》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민족미술의 이론과 실천》 등이 있다.